

登錄 番號	3204
分類 番號	
圖書 番號	

1908

35

經國美談 卷下
미담 권하

Inches 1 2 3 4 5 6 7 8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KODAK Color Control Patches © Eastman Kodak Company, 1977



경 국 미 담 권 8

제 일 회

각설회랍은구라파유남부반도이니디중회의소사나그형상이호로병갓트며쥬간의논
가룬디형이잇스니넬기가십니의지나지아니호고좌우의두조각큰싸히잇스니남편은
릉청방열스라호는디그가온디일곱구역이잇스니호아는남아니호나는미세호호아
는위리호호나는아계호호나는유악이호호아는슈치이니이씨에제일강국스파다가남
악니디경에잇고북편으로는릉청후나라호는디난호여달구역이잇스니호나는가룬
이호호나는지가호호나는모지아호호나는미아호호나는동랑호호호나는서랑호호호
나는법슈스호호나는영등이니아선국은지가지경에잇고제무국은모지아지경에잇고
또호편구역에특쇄리와마그돈과위류스와니슈회와차남니다섯디방이잇스니모도세
구역니에크고적은슈십국이잇는디이왕의스파와아선두나라이밍쥬가도얏더니근리
의사파가점점강성함이여러자근나라이모다사파국을멀우어밍쥬를삼으니이러므로
회랍전경니에감히사파로더부러디두호리엄더라이씨에제무국각지시임의민정회
복하고사파의슈병을쫓츠미스사로늘근범을덜디엿스니유히라첩지못호줄알고전
국이크배준비호야민병을모집호야쥬야호련호파비타위파릉오아타변에인비유니
두를명영타일급사름을드러군무위원을삼고크게군정국을여러영덕할방향을의논호

더니과연들으미사과왕되음위스사로되병심이만을거나리고제무로향호는지라오아
 티문득갈오디사파는회합에제일강국이오그군시유명호용병인디또동명각국을부동
 할앗스니이노사자가살을더함이라우리나라이비록민정을회복할앗스나디방이크지
 못하고또간당이요란한뒤을이어원고조상하고군비미정하며양식이부족할야안호로
 논가히밋을강병이업고밧그로는가히자되할린국이업스니엇지능히적할리오다만
 우리나라백성은승패존망을불개하고죽도목싸화조선의붓그러움을밋치지아니할싸
 름이니라비를이갈오디우리나라훈린치못할군사로써유명호사파군스를적할진디
 만일들에서싸호면더욱디적지못할지라한갓곳에적히미조호나우리나라성지가곳지
 못호니엇지호리오문져군사를발호야외철늘과평근녕두곳노지을적히여스병으로하
 야곰급히지경에범치못하게하고그스이에성곽을슈보하고양식을준비함이장구지
 가호노라파비타갈오디니가고리의성패호자최을보견디싸호에이기고패함이싸호기
 전에정함이라일엄으로유식할선비논미양면대를살피나니이제스병으로더부러들에
 서싸호자호며험호디지희자함은도모지목전지사이니요형이호변싸화이그디리도장
 구지계아나라이제회합전경에슈십국이잇스나사병을견디디적호리는아선에지나
 리업스니우리무리외교당낙을베푸려아선인심을고동호야두나라이서로연결호야사
 병을디적함만갓지못호니니싱각에는일변군스를발호야험호디을적히고일변아선에
 사신을보닉여구원을청함이조할가호노라여러사람이그말을을케녀여의논을결단호

나라이씨제무전국이사와의천히군을거나리고움을듯고모다사와의강함을밋고약
 함을업슈이역여덕의을도라보지아니함을호호야사람다눈을부릅뜨고이를갈아부
 자는돈을니고가난호자는힘을니야의히사파을멸한다호야전국이밋천것갓다라이
 에총통관가륜과세응본이여러형정관과각회원을거나리고날을갈히여도성우히모도
 여을흔손에갈을잡고원손의피를들어갈날우히피를호녀사파를향호야성우히싸자스
 병으로더부러지전호의사를포호야밍세호니이씨에성아리모도여보는지십여만인이
 모다소리질너제무만세를부르다라이에변예인비류이는군스이만오천을거나려서북
 편평근령을지히고파비타마류오아타는군스일만오천을거나려동남편의철늘을적히
 며점호야아선을연합할일을담척호니다섯사람이도모지사양치아니호고죽일발행호
 더라파비타마류와오아타로더브러외철늘에이르러지형을살피영치를세우미오아타
 의개군무를맛기고마류로더브러편장슈인과경의백여명을거나리고아선으로향호니
 외철늘에서아선도성이상거불과백니노정이라아선국니사람들이제무에큰사업호영
 응이움을알고모다도로에매여관광호야총찬하고탄식지아니리업더라당하의파비타
 일히이아선도성에들어가몬저니디부종을차자가니니디디단반기여마즈며일히장졸
 은별처에보닉여안접호고자고논파비타와마류를잇글고후당으로드러가니발서법배
 마와아자돈일반정당이파비타움을알고니디의집에모도여기다림일너라파미두사람
 이니디를향호야삼년후의를사례호고아자돈등을향호야슈년셔로사랑호든의취와의

병을 일으켜 협조하던 일을 사려하니 디등이 또 파마양인의 꾀장한 사업을 이름을 청송
흙이 주객이 더욱 혼연상투하니 파비타도 아선과 제두나라에 술치상의 향야스파를
뒤적혔을 노를 말하니 디일오티이노본티나의 주견이라 극녀 주선하니 와다만우리
나라 인심이 정처 못하야 근년의 사파티병이 갖가 이음을 알고 전제당파의 당이 도모지
사파로 디브러 연결함을 주장하니 우리 민정당이 홀노 억제하기 극난하노라 파비타갈오
티이 일은 온전히 제공의 능력을 밋노니 만일 우리 두나라이 연합하면 엇지 두나라 인민의
행복이 아니리오 이러구러 날이 점은 지라야 자돈등은 문저 집으로 가니라니 지정히 두스
름으로 더 부러다시오랜 회포를 펴하엿더니 홀연의 철눈으로 조차 급한사지와 보하되
사왕 뇌음 위스사로 디군심만을 거나리고 임의 가를지 협을 넘어 제무를 향하야 왔스니 청
컨디 파미양 장군은 말니 본영으로 도라가 하거늘 파비타도고 문득 몸을 이르혀 도라가
라하니 지범을 거갈오티가 룬지 협으로 브러의 철눈의 일으기가 삼일노정이 어늘 엇지
이처럼 착급하리오 오날 밤을 머무르고 명조의 가미디지 아니라 하니 파비타부득이 하
야 다시 안쇼마류는 디단이 급조호모양일너라

제이회

각설니 디두사람을 머무르고 문득 녀아영남을 불너 손을 디접하게 하니 들녀 생각컨디 이
왕의 근호 망명객으로 형용이 초최하고 괴상이 참담하니 지금일국티신으로 의괴현양

함며 풍제화려하니 영남의 반기는마음이 비헐디엿더라 마참민당중의 서급한일이 잇서
니디를 청하거늘 디영남으로 하야 금손임을 디접하라고 충충히 가니 좌상에 다만 세
사람만 잇는 지라 영남이 파비타더러 무려 갈오티 존귀 멋들이나 유하려하니 잇가 파비타
갈오티 나라일이 황급하니 명조에 곳 회국하려하니 디영남이 갈오티어 나씨의 다시 오
려하시나 잇가 파비타갈오티다 형히 싸움을 이기면 속히 또오려니와 소저는 우리 제무에
호번 유람치 아니하시나 잇가 영남이 갈오티 생각은 그윽하니 귀국에나의 친척이 업스니
불편한일이 만호고로 여의치 못하니 디파비타갈오티니 집으로 동도 주인을 삼음이 무
삼불가함이 잇스리오 영남이 갈오티가 나를 시려 할가 혐의하노라 파비타갈오티다
만니 집의 오시면 비록 여려날 유련하디리도 조곰도 혐의할비엿다며 두사람의 의논이
논만호고정의 환함을 나마루 것티잇서 이윽이 보다가 우셔 갈오티그디네수작이 완연한
부부일반이로다 영남이 듯고 문득 머리를 슈기며 안색이 난연하야 반하이나 말하지 못하
디니 디발셔도라오난지라 파비타무르되 무삼국스에 관계한일이 잇는노 디갈오티
다름이 아니라 십여년전에 우리나라에 호난당이 잇스니 일흙은 흑철이라 우리 민당의 쏘
치인비되야외국에도 망하엿더니 지금스파의 동병함을 인하야 경년에 드러와 인심을 선
동하디우리 민당이 이일을 염녀하야 나를 청하야의논함이 오다른 일은 업노라 이러구러
밤이 깊푸지라니 디두사람을 인도하야 스쳐의 안을 하고 영남은 디실노드러가더니 이일
에 마루 파비타를 제촉하야니 디와영남을 작별하고 종괴백여인을 거나리고 외철운으로

향하야가니라

차설혹찰이라하는자는비록심술이부정하나구변이민활하야능히중심을격동하는수단이잇난지라민당에용납지못함으로부터도망하야유악지방에잇더니스왕아제날이제무를철시심년에혜오디만일제무를치면아선이와셔구원할거시오두나라이런할면덕세에리치못하리라하야가만니속국을쥬축하야혹찰을리히로달니여운동을시그니혹찰이정히그회를기다리든초이라흔연이응낙하야선디방쥬스에드러가되도회조인중에연설를베연푸니그설취지가세가지니제일은아선이스파에득죄함은민정당이제무를년합호연고이니민정당괴슈를모다명법호호는일이오제이는물논을출공회하고회중에참예호는인원은국고금으로월봉을디급할일이오제삼은물논디소공회하고방종금지호는규칙을물시하야인민이자의로회집호물허락함이라여러우미호백성드리원리스파를외접호는중또회원의일급지발호다는말과자유방종함을듯고낙종치안나니업서점점도당이만흔지라잇셔민정당중에가리두랑이라호는사람이잇스니년미만삼십에지락이영발호고의괴상패하야사무에충달호더니혹찰의광경을보고되단근심하야니디를보고갈호디아선에큰화가의면스파에잇지아니호고니다혹찰에잇는지라혹찰이외국에잠복호지십여년이러니이제홀연도라왔스니그포장화심이적지아니함을가히알거시오또저의말을듯건디사람마다회에참예호고회원마다월봉을지급호다호니국기무삼지물이잇셔공급호리오이느도모지우민을선동하야국가를

개어조러일장본이니진시박멸치아니호면큰화가이르리라니디갈호디이느불과난민을선혹함이라하다양민이응중할리치가업고또저에의견이오백명공회의준허를어디야시형될터이라호고갑히패렴치아니호더니불과그일에혹찰에난당이더욱괴란업서전국에만연호야지어공회회민써지라도저의혹한비되야회중의발표호는것잇스니민정당이부득불받디호는디이른지라가리두랑이니디를또디호야갈호디이제디란이비록발호지아니호야스나디세일의가고국사를가히할슈업는지라이제두가지계획이잇스니우리민당두령들은일즉이벼살을바리고전리로도라갓다가난리가극진하야백성이후회할씨를기다려회복함이상책이오들지는오백명공회에단속하야저에의논을압제호고헌법을긋게지회미중책이나아모리성각하야도피신이위상이라호디니디등이오허러밋지아니호거늘가리두랑이일이잇지혈슈업을알고각민당두령의게장서를붓쳐그회포를말호고장단일성의홀노성밧과나아가부지거쳐러라

제삼회

차설니디법네마제인은본리정치가이라엇지이일에이처럼어두우리오마느니럼에혹찰이비록도당이만호나불과사무회무식호무리라설스공회에무삼의논을제출호지라도우리민정당이미양다슈에거호니제엇지발표리오호고크게근심치아니호얏더니공회일조를당호미전제당괴의미당이도로여난당과합세하야문득방종호유금지호는법

를을물시하야스름마다임의로모도이게하니이에난당에형세더욱강성하야도처에임의로회하고제반그피괴혼의논을발표호되혹반티하는지잇스면위력으로공갈하야도곰도그단이업더니또읍촌에모도이느빈민을국고금으로월급지출할일을오백명공회에제출할시난당중영슈에무슬포라하는지연단에올나말을니여갈오되

자리로국법에읍촌회원들은봉급을주지아니하야가난호백성은능히회에참예치못하니여러분은싱각하여보시오저백성이임의회에참예하야국스름의논을진디곳나라를위하야힘을다하는스름이라국가의서당연히봉급을발하야저백성을주는거시이인민을보호하는직분이라하니

말을마치지못하야모든난류비들이손바닥을치며부르지저갈오디이말이절당하다만일반디즈가잇스면싸려죽이자하거늘민정당중에티명이라하는스름이분연히연디에올나갈오되

국가에헌법을세우고정부를배푸른전국민만을일체로위함이니부자는무삼복을더바드며가난한자는무삼복을덜바드리오국가의서저의무리티접함은일체평등이오경중이업거늘이제가난한사람을위하야월급을지출할진디국고금은어디로도차나

노노

말을다못하야난당이크게부지저갈오되저놈을잡아나리라하더니슈삼지족도가연단에뛰어올나티명을살어나리거늘민정당들이다라구원하미일장풍파가이러나회석

이난장이되얏더라

각설사파왕의음무는본리유명호명장이라몸이군중에잇는지삼십여년에소향무적함으로스왕아제날과일반회원덜이미루어전군총독을삼아제무를치게하니되음위부장인홍으로하야금군사독만을거나려평공령을치게하고즈고는군사독만을거나려외출윤을치니이석파비타등이군사만여인을거나리고근근히지탱하야삼십여일을지니더니홀연제무도성으로서급보가와갈오되

사파제이군이임의평공령을매치고군사를난호어일군은도성을향하고일군은외출윤을읍습하니바라건디장군등은빨니군사를거두어도성으로도라오라하얏더라

세장쉬보기를마치미크게놀나곳회군하야도성으로향할시감히정노로가지못하고아선변경으로도차소로향하야갈시파비티니럼에혜오디니아선을연결하느위임을맛타결말치못하야시니불가불한번다시단여오리라하고이에군사를오아타의게부처살니도라가라고즈고는마티로더부러천병백여기를거나리고아선으로향할시도성전면에이르니연무가창현하고남함하느소리성밖과진동하느지라피란하느백성을맞나즈서히무른디답호되난면이형형하야민당을포살하디니디법네마아자돈등이다참살을당하고가옥을소파하고지산을탈취하느거늘파비티크게놀나부르지저갈오디나에은인이이제난을입어쓰니엇지가구치아니하리오하고말를치쳐성으로드러가려하더라

제 스 회

차설파비래나디등이난을만나물듯고곳성으로달녀드러가랴하거늘마뤼구지말녀갈
오티그디는일국에티신이오만군에티장이어늘엇지가바야이위래호쌍을발부려하나
료만일쪽도를만나볼형호일이잇스면비록그디에몸은도라보지아니하나우리제무를
어나싸히두려하노그디가반다시은인을구원호진디니원컨디그디를디신하야호변
갈거시오그디가친히간다호은단단을가하니라파비래마지못하야마뤼의게팔십여괴
를붓쳐보니며부락하야갈오티그디가드러가거든멧낫은인만구하야니이고구타여난
민과다도지말나마뤼응낙하교가거늘파비래십여괴을거나리고길가여점에셔기다리
더니셔가더디도록도라오지아니호을보고등히민박하든초에마뤼등일형이무사히도
라오거늘파비래급히무르되성니정형이엇더하디노마뤼갈오디는당이회당에웅거하
야정당을포살호고권리가모도논당에게도라갓더라파비래또무려갈오디연즉니군과
아군은엇지되얏노야마뤼갈오디아자돈과래명두스름은어제저녁에회당밧게셔는당
에게박살호비되고니디는법네마에집으로료초도라오다가중노의셔쪽도를만나몽우
리돌노두되를매쳐당장치페하얏더라파비래또갈오디나디에집안은엇더하디노마뤼
갈오디는민더리저에집을에위싸고저산을업탈하거니가갓슬썩에화광이충현하더라
파비래급히무려갈오디연즉영남소저는어디로도망하얏디노마뤼업집을가라쳐갈오

경 국 미 담

경

국

미

담

티영남은니가구원하거니여저집에두엇스미그디오기를현망하든중이라하거늘파비
래반기고놀나워급파그집에드러가니다만보리영남이상우히누엇는디이불노얼골를
가리온지라파비래나아가위로하며적지아니케놀나갯다하교이불을들고보니두눈을
긴히감고뺏갓흔안식이저밧치되얏는지라파비래놀나교의심하야마뤼를도라보아갈
오티이엇진연고노마뤼갈오디저에집에이르러실썩에는민더리가산을노략하교불
을노라가나를보고일제히도망하거늘그가인을맞나소저에안부를무른디디답호디
소저에신체가후정에잇다하거늘그가급히가보니과연영남이돌에상호비되야임의죽
엇는지라니싱각건디영남이그디로더부러정의갓갑고또그디에은인인교로그신체를
가지고와그디로더부러상면케함이로라파비래말을드르미비창호을이괴지못하야
물을흘니며영남을디하야갈오디그디는나를구원하얏거늘나는그디를구원치못하야
스니니엇지그디를저바리미아니나하교마음이갈노배이는듯하며살노찌르듯하야
슬푸물견디지못하나마뤼와밋종졸이협히잇슴물형의하야회포를억제하든모양일너
라당하에마뤼파비래를디하야갈오디아선이우리나라를도아민정을회복하엿스니우
리나라이당연히저를디신하야니란을평정호지라우리무리가곳회국하야슈천병을거
느리고다시와민란을진정하교은인을위하야웬슈를갑호미엇더하디노파비래갈오디
체니나라이평정하야야다른나라를간섭호터이어늘현금스병이국도를에우미우리나
라이스스로보전기어렵거든하물며나문힘이잇셔남을구원하리오일이임의이지경에

一一

이르렀시나이곳에잇셔유익함이업는지라말니본국으로도라가스병이물너가물기다
 려다시상량함이늦지아니타하고곳종졸을거나리고영남에신체를거두어정결처에못
 고마류로더부러본국으로향하야가나라
 회국후의일에스병이발셔도성을에우니원리되음위외철윤에직회군식물너가물알
 고곳장구디친하야도성을향하미일노의감히저당홀지업는지라제이군으로더부러합
 병하야도성을에우니잇셔에제무군스가약하고양식이부족홀디또구원하느니라가업
 스되다만인심이제일하야죽기를밍제하고셔로직회니스병이에운지삼십여일에또한
 장척이업는지라일일은되음위제장을모도고제무에간당이군중에잇는것를물너무려
 같오디너의무리가이왕말하기를제무인민이민정을기버아니하야도정을원망하느
 며디군이흔번성에임하면허다한백성이니응이되리라하느니엇지하야성을에운지삼
 십여일이되도록홀키니응도업슬분아니라갈스록더욱곳게직히나노하니간당더리머
 리를숙이고한말도디답지못하느니라왕이티로하야썩지저물니치고제장을디하야갈
 오디처음요랑에는제무가민정을회복홀지오리지아니하야안심이형치아니하고양초
 를준비치못하야쓰니디군이흔번이르면망풍분괴할줄아랏더니썩박괴외철윤의셔삼
 십여일을지체하고도성의이르러에운지또삼십여일이니출군일조로게산하면임의팔
 십여일이지는지라제무사람들은갈스록더욱곳게직히고우리군사는냥초가점점부족홀
 중의후가염련에갓가오미형군하키니치못홀지라이제제무를파치못하고도로혀너의

군사만상하면엇지붓그러오미아니리오이제우리가되병하얏다가추절을기다려다시
 와말하느거시엇더하노제장이나종하거늘이에되병하기를결단하고당일에호령을너
 러처중은압허거하고그병은뒤에잇셔완원이물너가니제무성에서스병이흔연물너
 가물보고도로혀물너타지하니파연회군하야본국으로간지라성니스름더리셔로경하
 하더라되음위군사를잇글고모지아남경으로지나다가부장소방도를명하야군사사만
 을거나려불남래도성에머르케하느니라불남래는스파다동명국이라북으로제무를접하
 고동으로이선을바라니이논아선을공갈하야감히제무로더부러연명치못하케함일너
 라

차설야선에난당더리니디법제마등을죽이미일한민정당더리스방으로도망하야성명
 을도모하느니라난당이오벽명공회의안을고쳐가느흔회원월급지발하느장정을마련
 하니이에아선도성이도시난당제라기중에또유규티브리등이라느지잇셔또일종의
 논을발하되부자에부동산을난호와가산하스름을주어빈부를교로게하자는말를창설
 하미그기세가혹찰도곤심홀지라이러무로혹찰파서로반디하느니맛참혹찰이스파장
 슈소방도의게밀통하야불피를도모하다가탈노하야옥에가도너저난당이일어느후로
 불과슈월에반복이무상하야아선에물들과법도가쓴다시업셔졌다라

각설소방도는 소파에 유명호용장이라 불납태에 주찰호후로부터 스만정병을 거나 렷스
 미심년에 엇지 한면 제 무를 멸한 면 엇지 한면 아 선을 삼켜나 에 명예를 빚니며 국세를 확장
 홀고 호는 마 음이 항상 흥중에 왕니 한디니 이세 아 선의 니란 이 이려나 미제 반선 스와 상민
 등 이 나 역 부 절하 야 종 회 지 술로 말하 는 지 만 터 라 일 일은 아 선으로 오 는 상 민 두 사 람 이 보
 기를 청하 거늘 마 저 드 리 나 한 나 는 년 과 오 십 여 세 에 슈 미 호 뵈 고 호 나 는 년 과 삼 십 여 세
 에 용 모 청 슈 하 디 라 상 견 네 필 에 무 러 갈 오 디 아 선 에 떠 는 지 몇 날 이 노 디 왈 불 과 슈 일 이 로
 소 이 다 소 방 되 또 갈 오 디 아 선 정 형 이 엇 디 한 노 두 스 람 이 갈 오 디 난 당 이 창 결 하 야 과 강 이
 현 이 호 고 박 성 이 나 산 하 야 정 부 가 업 습 과 일 반 이 니 다 소 방 되 갈 오 디 그 디 가 나 를 보 은 엇
 지 한 뜻 시 노 기 중 삼 십 여 세 된 사 람 이 말 호 디 이 제 온 뜻 쓴 첫 지 아 선 을 위 함 이 오 돌 지 는 장
 군 을 위 함 미 로 소 방 도 갈 오 디 무 삼 고 견 이 잇 나 노 디 답 하 야 갈 오 디 폐 방 에 난 민 이 회 형
 할 미 박 성 이 도 탄 하 야 머 리 를 드 러 스 방 을 도 라 보 되 어 니 나 라 하 나 를 위 하 야 간 당 을 소 멸
 하 고 디 란 을 평 정 할 고 호 는 마 음 이 큰 가 물 에 무 지 배 바 름 갓 든 지 라 장 군 이 이 세 를 타 호 번
 드 러 니 란 을 평 정 한 면 이 는 장 군 에 불 세 지 공 이 오 스 파 에 국 세 가 런 하 에 진 동 험 지 라 아 선
 파 스 파 두 나 라 이 자 고 로 서로 강 하 야 복 중 치 아 니 호 지 천 여 세 러 니 방 열 스 호 싸 함 에 아 선
 이 디 패 하 무로 부터 기 시 에 싸 호 든 귀 국 장 슈 노 삼 도 에 명 예 가 런 디 에 진 동 호 디 다 만 그 세
 에 는 무 력 으로 압 제 하 야 인 심 이 불 복 호 고 로 슈 년 후 에 아 선 이 도 회 복 하얏 거 니 와 지 금
 폐 방 인 심 이 목 마 른 디 물 싱 각 함 파 티 골 푼 디 음식 성 각 함 파 갓 트 니 이 세 를 타 곳 도 성 으로

드러가 디 란 을 평 정 한 면 아 선 사 람 이 온 혜 를 감 동 호 고 덕 을 품 어 영 영 속 국 이 되 리 니 그 러
 한 면 장 군 에 공 녀 이 뇌 삼 도 에 게 비 호 진 디 엇 지 만 비 가 아 니 라 과 회 를 호 번 월 호 면 다 시 오
 기 어 려 올 터 이 니 원 권 디 장 군 은 속 히 결 단 하 옴 소 서 소 방 되 듯 기 를 마 치 미 크 게 감 동 하 야
 갈 오 디 이 왕 에 다 른 스 람 의 말 호 비 적 지 아 니 호 디 다 명 박 지 아 니 호 고 로 유 에 미 결 하얏 디
 니 이 제 그 디 에 말 을 드 르 니 날 노 호 여 금 의 심 이 패 히 홀 인 지 라 니 주 의 를 정 하 야 쓰 니 공 등
 은 물 너 가 라 호 고 몬 저 사 신 을 아 선 에 발 하 야 강 화 하 는 뜻 술 되 여 그 마 음 을 녹 기 디 라
 차 설 저 양 의 상 민 이 스 자 에 발 호 함 을 보 고 자 과 에 게 척 이 일 우 를 알 고 호 언 허 본 국 으 로 도
 라 오 니 원 리 저 두 사 람 은 닐 고 하 니 오 십 여 세 된 사 람 은 아 선 에 잇 는 장 사 하 는 사 람 이 오 저
 삼 십 여 세 된 사 람 은 파 비 라 에 집 사 에 온 이 라 제 무 에 민 정 회 복 호 후 저 의 공 을 과 록 하 야
 편 장 이 되얏 디 니 총 통 관 세 응 본 이 그 구 변 이 너 녀 함 을 알 고 거 짓 아 선 상 민 이 라 일 가 러 소
 방 도 를 썩 여 아 선 을 치 게 하 야 두 나 라 를 이 간 하 야 아 선 으 로 하 야 금 사 파 를 원 망 호 고 제 무
 를 사 과 도 록 하 니 이 는 세 응 본 에 외 교 슈 단 일 너 라
 차 설 소 방 되 아 선 에 강 화 스 자 를 보 내 후 로 당 일 화 혼 에 군 중 에 영 을 너 러 사 람 은 갑 옷 술 싸
 고 말 은 방 을 썰 여 제 무 도 성 을 향 하 야 전 발 하 디 니 반 로 에 호 연 영 을 너 러 아 선 도 성 으 로
 향 하 라 하 거늘 부 하 제 장 이 무 삼 연 관 지 아 지 못 하 야 소 방 도 의 게 무 러 갈 오 디 아 선 은 국 의
 중 님 으 로 성 명 호 나 라 이 어늘 어 인 연 고 로 처 려 하 나 잇 가 소 방 되 갈 을 만 지 며 썩 지 저 갈 오
 디 일 이 임 의 이 에 이 르 렇 거늘 무 삼 잡 말 을 호 는 노 기 중 에 보 이 라 호 는 장 슈 니 다 라 갈 오 디

아선은사파에티한야국의중남을성명하얏거늘장군이무단히철진되소장은부하군스
만여인을거나리고불남태로도가라하나다소방되제장이이처를힐난함을보고부
득이한야아선에너란과스파에국제화장홀그들을반복설명하고다시엄하게호령을너
리되만일군령을어기논자는참하리라제장이그제야복종하거늘곳군스를달려아선을
향하니감히저당하는지엄는지라마로도성하에이르니동방이임의발갓더라아선사람
더리스병이홀디에와엄습함을보고크게놀나각처에서크게경종을울려수비병을모아
성에올나파수하니이제소방되임의성하에이르러보미성니에서발서준비함이잇는지
라감히치지못하고군스를물너불남태로도라가니원리소방도마음은밤김푸물타출기
불의갈아성니로드러가려하얏더니중노의서제장파상지현연고로시각을지체하야스
불여의힘이러라처음을써논창자에가득현예기로큰스업을이불가하더니말년에너
력만치도소득이업시무료히되하얏더라

각설아선난당이정권을어든뒤로스파와제무두나라싸홈에국의중남을설명하야야국
간에편벽도이돕지도아니하고양국군사아선경년에범치도못할일노공포하리라이러
므로벼기를높피고근심이업다하야국니각처에수병을거두고국인이병과미미함을금
지하얏더니졸디에스병이밤을타도성엄습함을보미거의나라를망할변하리라이에군
스를발하야변경을방비할것이제에아선이일초디란을지니무로부터명망과지각잇는
장쉬모다외국으로도망하리라이에서로두사람을선부니하나흔지명유니이는유명호

정치가공통에아저라년불과삼십여에성되할달하야디락이잇고여진사람을공경하논
지라이금에유람하얏다가본국에난이잇음을듯고그들을살피려하야도라움이오하나
논히무리니던성이상쾌하고담락이과인하리라과스에유람하야다가본국에너란이잇
음을듯고칼을집고도라와디니마참장수를썸는디두사람을천거하논지라난당이자기
에심복이아니물힘의하야십분밋지아니하야이에흔게척을싱자하야도성밧쥬회십여
리밧그한히병선을회정호디장수가군스를거느리고도라을써에히병선에이르려셔는
군스를일제히산케함이라만일녕을어기면디역부도로스형에처하기로작정하고두
사람으로하야근히병선밧그서군스를편제하라고또자기심복두사람을감군을정하
야두장수와함께가게하니라

제 육 회

각설아선도성밧그일기춘락이잇는디스면에높은산이돌녀잇고좁잔은평포호디전묘
가종형하며가온디한시다가잇서경기절승호디시너를싸라춘락이버렸스니전지별유
런디라이제정히하월런디에농부더리밧히서기음을미더니다만보미현장쉬단과로종
자수인을거나리고산벽소로방황하다가한곳에이르러말을너려흔농부를더하야이
속히보다가반기여음하야갈오디나는수년전에이금에유람하얏든지맹쥬라죽히이스
이에은거함을알고특별이차자왔노라그농부농기를노치아니하고목목부답하거늘지

맹주종조를해쳐보내고곳농부에손을잇소리길싸큰나무아리반석우히이르러좌정함
이그농부그제야우셔갈오디이제아선에홍망이창군에역키우히이르렀도다지밍쉬갈
오디원컨디발근의논을드러하노라농부갈오디창군은목이당국에처하야쓰니디세
에후가리오논일이잇슬듯하나이처럼왕문홍을입으니맛당히디쥬만호소견을배풀리
라하고이에갈오디이제난당에소위논임의극점에 이르스니다시말할거시업거니와
디범일을이르키디면에가히도모홀과들이잇고외면에가히제어홀형제가업셔도성
공을못홀거시오또만일의면에가히제어홀형제가잇고니면에가히도모홀과들이업셔
도능히성공을못할런니와이제난당이호상공격하야벽성에한이골슈에드러스니이논
안흐로가히도모홀과들이잇습이오이제창군이히창군으로더부러디군을거나려강도
를지히니이논외면으로가히제어홀형제가잇는지라창군에충봉으로딩난홀마음을품
으른갑히아논비어니와히창군에의향이엇더홀은아지못하깃노라지밍쥬갈오디히군
도이성각이잇스되과단성이잇는지모로노라농부갈오디만일창군이히창군으로더부
러동심합력하야군사를돌여난당을전제하면이논던지에평장호소업이라창군에의향
에엇더하노지맹주함소부답호디농부갈오디니창군에의향을알깃노라난당이오벽명
공회를빙자하야히병선법들을마련하야디역률에처함을거리세미아니나가량지금천
백난민이그디를원망하고그디를쑥지즘이천만양민과천추공논이그디를감송하고그
디를찬양하노디비하면그디소견에경중이엇더하며만일간당이다시의심하야냥창군

에병권을아소소환호면후회막급이아니하니지밍쥬청필에황연디각하야갈오디만
일우리무리기스호면죽히한팔힘을도읍깃노나농부갈오디원컨세창군에악속을쫓깃
노라량인이설파에작별하고농부는의구히농기를잇글고밭호로향하니저농부는원고
원리난당이이러날세에이이흔게척으로나디등을원고호디듯지아니호의탄식하고도
라가숨은가리두탕일너라지밍쥬가리두탕에일장설화를드르미의심이돈석하야본영
으로도라왔더니불과슈일에과연난당영슈유규티등이스즈를보니여두장슈에게녕하
야군사를거두어도성으로도라하거늘지밍쥬심년에갈오디가군에소료에버셔나
지안노도다하고부하이만여과를거느리고국도로향하야도라올서히무리도또호삼만
여인을거느리고도라오더니임의히병선압히이르렀더라

차설히무리군마를거느리고경비하가에이르니이논곳히병선압히라곳군마를쥬찰하
고홀노중군에잇셔반복하야설각하되니만일군사를히산치아니호면이논디역부도라
그죄명을씻기어렵고만일군사를호변히산호면다시모도기어려운지라디언을어니써
에이루리오저두가지문제가홍중에왕니하야결단치못하더니다만불의몇낫심복장교
중군에나아와가만이말하되어제저녀에각장시창군에디사경영하논눈치를알고무불
용낙하야모다한번쥬기를원하니창군이이과회를타디업을이루지아니하노고난적에악
도를외접하야군사를히산호면난적이임의창군을의심호지라필경성명을보전치못홀
거시어늘무삼결단치못홀일이잇느노히무리다만점두홀싸름일너니또난당에보낸바

감군이 드려와갈오디어재로부터군심이변하야예서히산치아니하고바로국도로드려
가려하니이는다반적에사상이오법도를아지못하노니라장군은본리공정하야인민공
회에대하야도품도이심이업는줄아노니만일저의난언을드려히산치아니하면이느천
지에셋기어려운두명을이부리니장군은김히형각하라히무리한말도디답지아니하
니감군이또호를너가더라히무리혼조안저성각호티이느명에와사생에관계함이라하
고오히려확단치못하더라

차설이씨에히무리에부하장졸이난당을박멸하고조하노마음이발발하느주장에호령
이느리지아니함으로써감히운동치못함의도로혀한가하야일이업스미이씨는성히하
일런과라날이서산에걸치고버드나무그림자물빛슬희롱하니사름으로하여금홍처를
도읍더라맛참멋나팔쉬물가에소요하며정치를구경하더니다만드르미호초적소리
은은히나거늘모다그절묘함을칭찬하더니나무사이로서호목동이검은소를빛기타고
손에단적을가졌거늘모다무르되네가단적을잘부느다목동이가로티호두곡도를아나
능치못하야이다모다갈오디시현하야호변불나목동이호곡도를희롱함이나팔쉬디단
칭찬하더라목동이불기를맞치미나팔수에손에가진나팔을보고무르되이느무삼물건
이닛고갈오디이느군중에쓰느나팔이니라목동이한번보기를원하거늘갈오디네부는
법을모로거늘보아무엇하리오목동이갈오디호변시현하야보깃나니다나팔쉬나팔를
주어갈오디호변부러보라목동이바다가지고호변시현하니그곡죄련연히군중에부는

바진군곡도와같은지라이에각영이나팔수들이그소리를듯고진군호령이났다하야이
영문에서불고저영문에서디답음의일시간에각영이나팔소리런디를진동하니각장졸
이크게깃버하야서로이르되주장이뜻을결단하야발서진군호령이났다하고무불용냐
하야압홀닷토와아가니전부오천인미발서하슈를건넌지라이씨히장군이정히장중
에잇서주저하더니호연나팔소리진동하며디군미하슈를건너거날큰게돌나제장을
불네무른디제장이도로혀주장이호령을발함이아닌가의심하고디답지못하거늘히무
리줄연히마음을결단하야갈오디이느하늘이나를가르쳐디공을이루게함이안이나하
고곳호령을나려일제히하슈를건너도성을치라하더라

제 칠 회

각설지매주는주의을임의결단하고다만히장군에게취만살피더니밋히군이임의하슈
를건넌을보고곳군사를잇글고히병선을넘어도성을향할시황혼시에성하에이르러두
군시합하야잠간성밖의찰주하니이소문이성벽에들니미난당들이창황망조하야회동
관에모야난민을집합하야만명슈비티를스면에파슈하더라이씨에성밖의잇는군사
는디오를엄숙히하야육작이지아니러니다만보미한농부페의를입고파리호말를타고
종군을초조오니이느곳가리두랑이라지매주에동신을보고박비달녀옴일너라두장슈
연망히마져흙과장중에드러가일들의논할석가리두랑이당장에한겨서를써각쳐에고

시호니 경문티기에 호여스되
 예적우리선왕과로패인민으로더부러헌법을정호이후천여세에항상열국에패권을주
 장함며그스이에너의변란과성쇠에경일이업는비아니나그러나인민에절고와스회
 에문란과열국에전모함이오날날도곤심함이업고에적방열스싸흠에우리나라이크게
 패호야슈십년을능히회복지못호앗스니그통분함이극진호되오날날갓치혹형남벌에
 빈부가갓치회를바듬과갓지아니호고에적파스가우리나라에침입함의위성들이나라
 를바리고쇄니밀노다라나스니그해혹열호되오날날갓치분요함이그천석업슴과갓지
 아니호며이십년니로국세타디호야스파에역제를바듬이그육이극진호되남에나라도
 성을승야업슴호야빠아스려호는만함은잇지아니호지라슬푸다우리아선인민이무삼
 죄가잇관디하늘이난당을니여이혹화를만났는고난당이득권호야써옴으로무론공스
 회호고위력으로억제호야벽성이복종치아니치못호지니이인민에공화정치가아
 니라난당에전제정치오백성에저물을강탈호야빈민을쥬어갈오디월봉금이라호니여
 니사람은신고히어든저물을어니사람은안져셔누리는노열국을도라보되이갓튼정약
 은보지못호지라디체인민이국법에보호를바다평등으로이종은업스되다만덕의에후
 박과지력에강약으로말디압아조연초등이잇슴은현연호공니노인스에맞고지못호비
 어늘난당이그여히저산을고로고빈부를한갓갓지호다호야큰난을전국에입피니호호
 라는당이나라에무삼원슈가잇서이러호히거를형호는노기타국법을파괴호며량민을

능용호는종종무도무리호형위는쇄락하바다모리를다호야도능히그죄를세지못호거
 시오삼십년간당에고례를의방호디능히그허물을증계치못호지라일언이페지호고는당
 을바리지아니호면우리인민이독일에형복을구호며맹주에패권을회복호날이업슬지
 라이제셔남량로군식국세에설치지못호를분히너기고동포의도탄에잇슴을슬허호야
 이에의거를이르켜우리인민으로더부러우리선왕이신고히경영호야미려호
 고번성호강도가혹암중에싸짐을구원코자호오니우리아선국민들은성각건디문풍호
 기호고운집향응호야흠개는적을전제호야큰공업을이루리라위초교시호노라
 격서쓰기를마치미각처에반포호고도성니각방곡에게시호니원티디군이성외에주찰
 호고드러가지아니호는가리두랑등이디군에예고정히성호되한번성년에드리가면살
 육이과할가념녀호일너라이씨성니위성들이저문을보미의군이임의성하에이른줄알
 고삼시간에십위성군호야한디디를편성호야서남양문을매치고의군을영접호니이왕
 성직희던슈비디가또호난당에심복호비아니라일시에호터지니성밖의주찰호앗든군
 식용약호야바로성니로드러가라호거늘지히양장이금지부득호야티오를정속히호야
 서서히드러가니난당이난민을모라영적호나저난민들이평일에살인방화호는디는디
 단히용감호더니홀연히디군을맞나디일제히호터저그팀조도업는지라디군이병불혈
 인호고바로고여과에응거호니이성년에제일요다라다시군사를약속호야망동치못
 호게호니라

차설난당이디제가임의가물알고모다회동관안에모도여피란홀방악을의논홀시혹은
만여명폭도를모라죽도록싸호자며혹은외국으로도망앗다가다시회복함을도모
호지호야의논이분분불일호며회동관에몽키여감히호터지지못호더라

차설성니에서편집호의병이디군을영접호야드러오미점점모도여만여인에이른지라
평일에학티바들을동호호야갈오티우리무리가난적을다죽이고회동관을분탕호지아
니호면엇지슈월적호를풀니오호고일제히회동관을향호야에위싸니난당들이갈오티
이지경에당호야죽기는일반이라호고티로상의셔싸호미한편은원망이깊은원수를갑
호려호는사람이오한편은궁구가되야죽기를무릅쓰는무리라냥하흔전호미조곰도스
양치아니호더니필경난당은싸홀스룩슈효가감호고의병은싸홀스룩슈효가더호는지
라이림으로써난당이디패호야회동관을바리고성명을도모호야다라나거늘의병이회
동관을불질너화광이충던호니성니백성이박장창패치아니리업스며각처에호터진난
당을다도와잡아죽이니하날이임의크게발갓더라이에디군중에서한소티를니여진압
호니일장소요호호는아랫스미우리는노티의를창고홀싸름이니라지밍쥬갈오티성니에난당
양무비등은도망호야부지거쳐요그남아도당은죽지아니호면도망호야총히언지호면
성니에난당의그림조도업더라지밍쥬히무리셔로일너갈오티우리가난당에일이도모
지이루지못홀줄은아랫거니와저난당이성니소년조제에배쓰려다홀줄엇지아랫스리
오우리군스는도로허한터럭힘도히비힘이업도다가리두랑이갈오티니난당을제어호

기가용이홀줄은아랫스미우리는노티의를창고홀싸름이니라지밍쥬갈오티성니에난당
은임의제어호얏거니와각처에잇는난당이적지아니호며또위황양등이도쥬호얏쓰니
후려가잇슬가념너롭다호고각처에파병호야여당을추포호며일변으로만성인민을불
너국정을의논홀시제가지문제를니이니일은난당의법제를형철일이오일은구법을회
복홀일이오일은두조건의에무삼신정을키량홀일인디투표법을시행호야자괴에의견
티로말호라호니필경구법을회복호는의논이최다슈에거호지라이에인민에공의소
지를알니러라슈일을지니미디방에파송호얏든군티가복명호야갈오티각처인민이적
문을본뒤에무불진지호야각기협력호야난당포살호기를도성파일반이미일시에청정
호야착수홀비업다호거늘가리두랑등이디회호야이에난당에변물을일병페지호고구
법을복설호며공회규칙을이정호야조유방종을더욱엄절이금단호니이노티란을지니
미전철을증계홀일너라

제 팔 회

차설제무국상하인민이모다아선파연결호야스파를항거호는마음이골돌호더니스
왕아세날의독호베교에빠져아선이거의망홀지경에이를줄엇지아라스리오모다아선
을위호야평난되기를급히바라더니지히냥장이창의호야반정홀이전국이향응호야불
출십여일에구정회복함을알고무불환회호야파비타와필방선으로경하스겸외교전권

티신을위임하야아선으로보이니불슈일에도성에이르니다만보민인민이희소하고시
가가영성하야이전갓치미려번성하든광경이돈감하얏더라이씨파비타에소천이하나
로업슴으로여점을츠유속하니라

각설스왕아세날이후찰난당이정권을잡아아선민당을던복하미즈기에게척이이루를
알고환턴히디하야또사름을보니여위임으로써협박하오니로써달니미난당이더욱복
종하더니맛소방되도성업슴하랴하던일이잇스미아선인심이점점불복하야제무를향
하야연결하려노마음이나느니라아세날이소방도에벼슬를샅직하교일변아선에스신
을보니여설명하더니또하사름이아세날을달니여갈오디이제임의아선에스를보니
여제무에외원을얻어쓰니던과청냥하교양식이풍족흔씩를타제무를멸함이맛당히여
이다아세날이그러히여겨이에군스십오만을발하야스스로통솔하교가룬디협을너머
불남티에이르러군사삼만을머물너아선을위협하야감히제무로더부러연맹치못하게
하교그남아십여만을거나리고호호탕탕히제무로향하야진발하나이소식이제무에이
르미총통과세응본가룬이군무위원으로더부러의논하되스파티병이또이르니엇지저
당홀리오파군필군이아선에갓스니그원병이나기다릴가하노라위파등이갈오디우리
나라국세약소함의열국이아를미들거시업슴을아나니뉘절기여군사를발하리오아모
려나흔번싸화이긴연후에야린국이아를미더원병을보닐가하노라모다그말이올타하
고몬득위파등을청하야군사를담임하랴하거늘위파등이다시사양치아니하교전군총

독이되야사만군을거나리고영아산에이르니사군이발서삼십니밧괴이른지라위파등
이산상에주찰하야힘요를지히니아세날이심이만티병을거나리고사면으로에위싸호
디위파등이백계로물너치니삼일도록싸호티승부가업는지라제사일에이르려아세날
이원편에흔놓흔산이잇서영아산으로더부러연접함을보고곳군스를거나리고그산에
오르미이왕에논아리잇서우회를치미디단히곤란하더니지금양군이각각호산에웅거
하미형세상적흔지라제군이비록죽도록싸호나엇지사파에티군을티적하리오위파등
이스사로병력이단약함을알고영아산을바리고군사를잇글고도성으로도라가니라이
씨성니인민이위파등이능히저당치못하야도라움을듯고사병이죽일성을에올출알고
무불전를하더니위파등이군사를잇글고도라움을보미신식이래연하교의괴안한흔지
라일로인하야인심이안정하더라위파등이백성과군사를편집하야함제도성을죽히니
아세날이티병을장구하야도성을에우미이전에비하면양식이풍족하교예기가더욱성
하미단정코제무를멸하교야회국하려하더라

차설파비타필방선이아선도성에잇서동맹할일을담판할식이씨사파에사신이또이른
지라아선사람이사파에강함을두려워하교제무약함을념녀하야사파로더부러연화하
즈논외논이만흔중제무가영아산에서나치못하교도성이에움을입어싸는경보가이르
미파비타등이더욱초조하더라이씨에아선난당이임의멸하교구정을회복하미외국에
도망하얏든민정당이다점점한국하니원고는비록회복지못하나외교정처에가장주목

할는지라 지금에 가리두람이 창논하야 같오디 회랍 각국이 평화무사할기를 구할진디 불
가불세력이 평균한후사이니가사아선이 제무로더부러 연합하지 아니호디 도사파로더
부러 형제가 균적지 못할지라 균적지 못하면 능히 독립하기 어려우리니 이는 아선 제무가
일체로 망함이라 나라를 쉰함이 천하의 세만도라 볼뿐이니 엇지 경종과 이증이 잇스리오
지금 형제는 제무를 구원함이 올타함이 공회에서 그의 논을 조차 결단하야 사파사신을사
레 하야 돌려보내고 파비타등으로더부러 동맹조약을 체결하니 그도약에 하야스되
일은 아선과 제무모모 각소국으로더부러 동맹을 미즈사파를 항거 할일이오

제이는 아선으로밍주를삼을일이오

제삼은 미년에 동밍회를 아선 도성에 회할일이오

제사는 서로 돕고 서로 구원하는 장정을 마련하야 동맹 각국중에 급함이 잇스면 각기 구
원할의무가 잇슴이라

이도약은 양국전권위원이 관하 각속국위원을 회동하야 이룬비라 파비타이에 구원병청
할말을 제출함이 가리두람이 극녀 주선하야 히무리로 총독을 삼아 삼만군를 거나리고 파
비타 필방선으로더부러 함께 제무로 향하야 오니 이씨에 제무사병으로더부러 상지함이
임의 삼십여일이라 홀연히 무리에 군사움을 보고 제무성에서 환성이 진동하더라 히무
리도 성동문밖의 주찰하야 성너로더부러의 각지세를 지엇더라

초설사파군중에 안디 유란지 잇서 허다 장사로더부러의 논하야 같오디 전주에 제무를 처

다가 양식부족함을 인하야 조곰도 어든 비업시 되병하얏더니 이제 아왕이 천히티 군을 거
느리고 이에 이르러 또 유범범하야 양기월를 지니도록 한번기 전치 못하니 어니 세월에
제무를 멸하리 오우리사파에 병력으로써 양차거병하야 제무를 멸치 못하면 엇지 붓그럽
지 아니하리 오제장이 모다 분분하야 홀개 중영에 나와 세날을 보아 같오디 이제 아산군
식동문외에 주찰하야 스미군사 슈호가 삼만에 지니지 못하고 또 군식 슈전은 잘호디 독전
은 소장이 아니라 한번싸호면 이기지 못할비업스니 아선에 원병을 패하면 제무취하기가
유이 할가 하노이다 아세날이 같오디 아선군식 비록 적고 독전에 능치 못하나 그 주장이 유
명훈장 슈히 무리라 단정코 정적지 못하리라 하니 제장이 드르미 더욱 불하야 같오디 세
상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이전초에 출병함은 제무에 군사교련하야 준모양이라 하얏
거늘 이제 또 무삼일로 싸호지 아니하니 이는 전모양을 또 본밧음이 아니잇가 우리나라 누
백년 패업을 티왕에 손으로 남에 나라에 사양함이 가하리 잇가 하며 모다 분격함을 견디지
못하거늘 아세날이 그거동을 보고 마지 못하야 군중에 념하야 기전을 준비하교 아선군중
에 사람을 보닉여 전서를 전하니라

제 구 회

각설위파릉이 각군위위원으로더부러 진심갈력하야 도성을 파슈하더니 일일은 홀연 성
우에서 바라보미사파영에 나팔소리나며 십이만인 미습시간에 중영으로 모되는지라

